

## 언어, 비판 그리고 화해의 유토피아

-아도르노의 언어이론을 재구성하기 위한 한 시도-

정 우 진

(서울대학교 미학과)

“모든 철학적 비판은 오늘날 언어비판으로서 가능하다.”

— T. W. Adorno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철학적 문제로서 언어에 친착한 언어철학자로서의 아도르노의 언어사상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그의 중심 주제들을 이끌어내고 연결 짓는 어떤 해석적인 열개의 구성을 시도한다. 아도르노는 1930년대 초 작성된 에세이 「철학자의 언어에 대한 테제들」에서 동시대 철학의 전제들과 입장을 해독하는 열쇠로서 언어비판을 주장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

**주 제 어:** 아도르노의 함축적 언어철학, 사물화 비판으로서의 언어비판, 성위, 화해의 유토피아, 언어의 유물론적·역사적·변증법적 성격  
Implizite Sprachphilosophie Adornos, Sprachkritik als Verdinglichungskritik, Konstellation, materialistisch-geschichtlich-dialektischer Charakter der Sprache, Utopie der Versöhnung

신의 생각들이 예언적이게 될지 아마 내다볼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 추상적이라고밖에 명명할 수 없는 철학자의 언어적인 처리방식은 어쨌든 변증법적으로만 사유될 수 있다”<sup>1)</sup>는 그의 확신은 언어의 사물화 과정의 역사로서 재구성될 수 있는 『계몽의 변증법』(1947)을 거쳐 “변증법, 그 낱말 뜻 그대로 사유의 기관으로서의 언어”<sup>2)</sup>의 이론으로 각색될 수 있는 『부정변증법』(1966)에 이르러 입증될 따름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의 제사(題詞)로 쓰인 “모든 철학적 비판은 오늘날 언어비판으로서 가능하다”<sup>3)</sup>는 테제는 아도르노의 철학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이 테제를 특수한 종류의 언어적인 전회가 사실 아도르노의 저술들에 내재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철학이 오늘날 언어비판으로서 가능하다면, 이는 모든 철학이 언어비판으로 환원될 수 있다거나, 혹은 언어가 철학의 유일한 관심사이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님이 분명하다. 언필칭 현대철학의 언어적 전회가 “언어만을 철학의 주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다양한 주제들이 언어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된다는”<sup>4)</sup> 의미에서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물론 아도르노가 어떤 체계화될 수 있을 만한 언어철학을 내놓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는 철학과 **사회비판**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할 때조차 어떤 명시적인 언어이론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르노의 전 저작을 통틀어 곳곳에서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으며, 그 주제들은 언어의 역사적인 와해에서부터 비판적 사상의 원동력으로

1) Theodor W. Adorno, “Thesen über die Sprache des Philosophen,” 전집(Gesammelte Schriften) 1권, 369쪽. Suhrkamp 출판사의 아도르노 전집 편집자인 Rolf Tiedemann의 편집자 후기에 따르면, 이 에세이는 1930년대 초에 씌어졌으나 그의 생전에 출판되지 않은 원고이다(같은 책, 383-4쪽).

2) Adorno, *Negative Dialektik*, 전집 6권, 66쪽. 이하 ND로 약칭, 본문에서 괄호 안에 쪽수와 함께 인용함.

3) Adorno, “Thesen über die Sprache des Philosophen,” 전집 1권, 369쪽. 이하 TS으로 약칭, 본문에서 괄호 안에 쪽수와 함께 인용함.

4) 이영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관」, 한국분석철학회, 『철학적 분석』 10 (2004), 32쪽.

서의 언어의 필수적인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폭넓다. 낱말과 사물, 소통과 표현, 사물화와 화해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명시한 그의 초기 에세이 「철학자의 언어에 대한 테제들」에서 이미 그의 언어비판의 주된 요소들이 맹아의 형태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몽의 변증법』에서는 공포의 외침에서 이름으로, 이름에서 명칭으로, 명칭에서 기호로 변모하는 언어의 역사에 대한 단상을 찾아볼 수 있다. 『부정변증법』에서는 언어와 철학의 친밀한 상호관계가, “예술의 참된 언어는 무(無)언어적이다”<sup>5)</sup>라고 주장하는 『미학이론』(<sup>1</sup>1970; <sup>2</sup>1972)에서는 예술의 언어적 성격이 다루어진다. 그 밖에도 헤겔의 언어와 특히 하이데거의 언어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 또한 언어를 둘러싼 이런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의 주제이다.

그렇다면 그의 전 저작에 걸쳐서 언어가 차지하는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계적인 언어철학을 발전시킨 바 없는 아도르노의 언어에 대한 비체계적인 반성을 실마리 삼아 아도르노의 언어사상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 먼저 비판이론의 전통 안에서 이른바 언어적인 전회를 통해 비판적 사회이론을 재구성하려고 한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아도르노 비판을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sup>1</sup>1981; <sup>4</sup>1987)에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도구적 이성 비판**이 “의식철학의 패러다임의 소진”을 대변하는 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로부터 “사회이론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근거들”<sup>6)</sup>을 찾는다. 여기서 의식철학이라는 말로 하버마스가 의미한 것은 재현하는 주체와 재현되는 객체 사이의 본질적으로 독백적인 관계에 기초해 있는 철학이다. 물론 하버마스는 의식철학의 한계들을 예시하는 한편, 그 한계를 넘어서는 동기들이 이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게 있었음을 놓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

5) Adorno, *Ästhetische Theorie*, 전집 7권, 171쪽. 이하 AT로 약칭, 본문에서 괄호 안에 쪽수와 함께 인용함.

6) 위르겐 하버마스(장춘의 옮김), 『의사소통행위이론』 1권(서울: 나남, 2006), 531쪽, 특히 557쪽 이하 참조.

도르노가 곤경에 처한 이유인즉, 그가 이성에 대한 확장된 구상의 가능성을 단념해버리면서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의사소통적인 관계로서 미메시스라는 모호한 관념으로 후퇴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주장을 철회하든가 부인함으로써 아도르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아도르노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의 요지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주장대로 아도르노가 의식철학의 패러다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비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언어의 문제에 대한 아도르노의 세심한 반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비판이 옳지 않음을 논하는데, 일례로 크리스토프 뎀머링(Christoph Demmerling)의 『언어와 사물화』(1994)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과 아도르노 철학의 대화를 진행 시킴으로써 하버마스의 이론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7)</sup>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알브레흐트 벨머(Albrecht Wellmer)는 한 강연에서 “아마도 우리는 아도르노의 함축적인 언어철학 혹은 함의성 이론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명칭을 선택하든지 간에, 아도르노의 이 함축적인 언어철학이 비판이론의 언어 화용론적인 재공식화에 의해 이미 만회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sup>8)</sup>고 말하면서, 아도르노의 함축적인 언어철학을 “발굴되지 않은 보물들”<sup>9)</sup>이라고 일컫는다. 벨머가 보기에 아도르노의 언

7) Christoph Demmerling, *Sprache und Verdinglichung: Wittgenstein, Adorno und das Projekt einer kritisch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4). 그 외에도 아도르노의 철학에서 언어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비판적 주목은 Fredric Jameson의 *Late Marxism, or, The Persistence of the Dialectic* (1990)을 비롯해 Peter Uwe Hohendahl의 *Prismatic Thought* (1995)와 Sherry Weber Nicholsen의 *Exact Imagination* (1997), 그리고 최근 들어 민형원, 「현대철학의 글쓰기의 형식으로서의 에세이」(2001), Sabine Bayerl의 *Von der Sprache der Musik zur Musik der Sprache: Konzepte zur Spracherweiterung bei Adorno, Kristeva und Barthes* (2002), Hermann Schweppenhäuser의 “Dialektischer Bildbegriff und ‘dialektisches Bild’ in der Kritischen Theorie”(2003)와 Donald A. Burke 등의 논문모음집 *Adorno and the Need in Thinking* (2007) 등 점점 더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듯 보인다(자세한 서지정보는 참고 문헌을 볼 것).

8) Albrecht Wellmer, *Endspiele: Die unveröhnliche Moderne. Essays und Vorträg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3), 231쪽.

9) Albrecht Wellmer, 같은 책, 234쪽.

어이론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회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긴장감 있게 만든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언어철학자로서의 아도르노의 언어비판과 언어이론에 집중하는 이유를 찾는다. 하버마스의 비판과 달리 아도르노는 결코 이론적인 곤경을 회피하거나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막바지 대국(對局)의 장소가 그의 언어이론이 될 것이라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도르노의 “함축적인 언어철학”의 “발굴되지 않은 보물”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는 그의 초기 에세이 「철학자의 언어에 대한 테제들」(이하 「테제」)을 중심으로 언어에 대한 아도르노의 기본 구상을 언어의 유물론적·역사적·변증법적 성격에 따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의 언어비판의 주된 요소와 기초 개념들을 만난다. 그런 다음 『계몽의 변증법』에서 나타나는 사물과 낱말의 다양한 역사적 관계맺음에 따라 언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의 언어비판이 사물화 비판과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도르노의 언어비판에 대한 논의에 뒤이어 우리는 대안적인 언어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부정변증법』에서 개진된 성위(Konstellation)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언어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여기서 한층 더 본질적으로 제기되는 언어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어떻게 언어는 결코 언어가 아닌 것, 이를테면 사물, 비동일자, 혹은 타자성 자체로서 던져진 것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키지 않고서 표현하거나 서술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는 성위는 어떻게 철학적 언어가 유토피아적인 화해를 위한 비판적 사상의 기관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 2. 언어에 대한 아도르노의 기본 구상

이제 우리는 「테제」를 중심으로 언어에 대한 아도르노의 기본 구상을 살

퍼볼 텐데, 이 에세이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우선 연대기적으로 언어가 그의 사상 전체를 통해 진척되는 매우 초기의 관심사였음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그리고 주제적으로는 이 에세이에서 언어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의 단초들이 제시되기 때문인데, 낱말과 사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유물론적·역사적·변증법적 접근방식이 그것이다. 이는 그가 비판하는 ‘기호 의미적(signifikativ)’ 언어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형상적인(konfigurativ)’ 언어의 대조 속에서 해명될 것이다.<sup>11)</sup>

## 2.1. 언어의 유물론적·역사적 성격: 관념론과 존재론의 언어 구상에 대한 비판

「테제」에서 아도르노의 분석의 전제는 철학자(그리고 작가)는 “와해된” 언어의 역사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다. 일곱 번째 테제에서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오늘날 철학자는 와해된 언어를 마주 대하고 있다. 역사가 그를 결합시키는 낱말들의 잔해들이 그의 재료이다(TS 368).” 또 다른 글에서도 우리는 아도르노의 비슷한 진단을 만난다. “사용과정에서 말과 언어형식에 일어난 타락은 손상된 언어가 되어 칩거한 작업장 안까지 파고드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손상이 수선되는 것

10) 이 텍스트는 같은 시기에 씌어진 또 다른 주요 텍스트인 「철학의 현재성」(1931) 및 「자연사의 이념」(1932)과 공통의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10개의 테제들로 이루어진 이 짧은 텍스트에서 이미 아도르노의 사유과정을 통틀어 그를 계속 사로잡은 중요한 문제들이 발견된다. 특히 이 텍스트가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아도르노의 이후 전 저작에서 결정적인 물음, 바로 **예술과 인식의 수렴**이라는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11) 아도르노는 ‘기호의미적 언어’를 사물화의 한 징표로 간주하는데, 사물화 된 사회에서 진정한 소통 가능한 언어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할 때 ‘형상적인 언어’는 표현을 위한 함축적인 모델로서 제시된다. 이때 언어에 대한 아도르노의 기본 구상에서 중요한 변증법적인 개념 쌍을 이루는 소통과 표현의 관계는 「테제」 외에도 『미니마 모랄리아』와 『헤겔에 대한 세 가지 연구』 등을 참고할 때 좀더 정교하게 공식화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 모티브만을 제시하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은 아니다.”<sup>12)</sup> 아도르노는 왜 언어가 이렇게 와해되고 손상되어 있는지 「테제」에서 완전히 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에 대한 칸트의 관념론적 구상과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구상에 대한 그의 내재적 비판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언어가 불구화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도르노 자신의 언어 구상을 위한 기본 용어들이 전면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칸트의 관념론적 언어 구상을 겨냥한 아도르노의 언어비판을 자세히 살펴보자.

「테제」 중 첫 번째 테제는 관념론에 있어서 이름(Name)과 그 이름이 뜻한 것(das damit Gemeinte)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는데, 이 비판의 표적은 비록 아도르노가 텍스트에서 칸트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의 초월론적 관념론의 언어 구상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식의 형식과 내용의 구별에 상응하는 철학적 언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관념론적 구별, 좀더 정확히 말해서 칸트의 구별이다. 아도르노의 전략은 그 구별에 대한 언어비판이 어떻게 바로 그 구별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파악된 대상이 궁극적으로 의식의 활동성의 산물이라고 여겨지는 칸트의 독트린에서는 이 형식과 내용 사이의 차이 혹은 “분리가능성(Ablösbarkeit)”이 해소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체가 형식임과 동시에 의식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이 차이는 결국 동어반복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물이 주관성의 산물일 따름이라고 전제된다면 대상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분리가능성이 부인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언어의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분리가능성이 은폐될 수 없는데,”(TS 366) 그 이유는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의 정신적인 구성물의 객관성이라고들 하는 것은 형식적인 채 남아 있고 언어형태(Sprachgestalt)를 만들어낼 수 없기”(TS 366)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도르노는 사물과 언어의 구별, 그리고 인식 및 철학적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구별을 보존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 바로 낱말과 사물 사이의 본유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낱말은 그 자체 단일 의미론적인 단위라기보다는 항상 사물과 불가분 관계되어 있는 것으

12) Adorno, *Minima Moralia*, 전집 4권, 248쪽. 김유동 역, 『미니마 모랄리아』(서울: 길, 2005), 288쪽.

로 여겨지는데, 사물에 대한 낱말의 이런 관계는 곧바로 언어에 대한 아도르노의 접근방식의 유물론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전면에 내세운다.

“관념론에서 이름은 그 이름이 뜻한 것과 표상적인(bildliche) 관계에 있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사태적인(sachliche) 관계에 있지 않다(TS 366).”

사물을 오로지 사유의 기능으로 파악하는 그런 사유에 있어서는 이름이 “의식의 자유로운 가정”(TS 366)일 뿐이라고 보는 아도르노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붙여진 사물의 이름을 “관념론적인 의식을 통한 모든 사물화의 기호”(TS 366)라고 비판한다. 여기서 언어의 사물화는 아도르노의 사물화 개념이 이른바 도구적 이성<sup>13)</sup>에 의한 지배관계에서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물과 낱말의 관계에서 의식 주체의 사물에 대한 전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물의 이름이 갖는 자의성은 초월론적

13) 아도르노의 ‘사물화(Verdinglichung)’ 개념은 K.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성 개념을 발전시킨 G. 루카치의 사물화 개념의 확대로 이해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사물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루카치의 사물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루카치가 말하는 사물화는, 첫째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의 관계로 현상되는 것, 둘째 자본주의 경제체계가 사물화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물신숭배 개념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루카치는 사물화 개념의 적용 범위를 사회 전체로 확장해 그것을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근본현상으로 간주한다. 양화(量化)와 추상화를 특징으로 하는 루카치의 사물화 개념은 특히 막스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계산 및 계산가능성에 바탕을 둔 합리화의 원리”(박정호 역, 『역사와 계급의식』, 186쪽)가 인간 정신과 사회 전체에 관철되어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공통 구조 내지 생활양식으로서의 “대상성 형식”(같은 책, 179쪽)으로 발전된다. 이와 같은 루카치의 사물화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사물화 범주를 자본주의 사회의 대상성 형식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세계사적 문명과정의 범주로 대폭 확대시킨다. 이로써 루카치의 사물화 개념의 핵심인 “대상성 형식”은 사물화의 한 역사적 형태일 뿐, 이제 사물화의 메커니즘으로서 이른바 ‘도구적 이성’이 새롭게 강조되어 인간들 사이의 사물 관계보다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지배-피지배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Friedemann Grenz, *Adornos Philosophie in Grundbegriff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4), 35-56쪽 참조.

주체의 추정상의 자유의 언어적인 반영으로 간주된다. 이름은 더 이상 유일 무이한 고유성을 지니지 않고, 오히려 교환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름의 자의성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구성된 통일성으로서의 개념의 우연성을 사물화의 더 나아간 지표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인식의 정당한 근거로서 자율성과 자발성을 더 이상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아도르노의 유물론적인 사유는 이와 같은 사물과 언어의 “기호의미적인 귀속(signifikative Zuordnung)”(TS 366) 관계의 우연성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관념론적 언어 구상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은 낱말이 단지 개념과 사물의 표상이거나, 혹은 “한낱 그것[낱말]들 아래 생각되는 기호”(TS 366)일 뿐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이 바로 아도르노가 **기호의미적인 언어**라고 일컫은 것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아도르노는 이 표상의 관계와, 그 근처에 있는 주체의 자유라는 것을 거짓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역사에서 찾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가 언어를 통해서 **진리**에 관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어를 통해서 역사는 진리에의 몫을 확보하며, [...] 낱말들 속으로 뚫고 들어가 낱말들의 진리성격을 형성한다. 역사와 진리는 낱말들에서 만나기 때문에 역사의 몫은 모든 낱말의 선택을 규정한다(TS 366~367).” 그렇다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철학자의 언어는 낱말들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철학자의 언어는 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 어떤 주어진 순간에 이용가능한 언어의 역사적인 가능성은 진리내용에 의해서 유물론적으로, 즉 “사태성(Sachhaltigkeit)에 의해서 미리 그려져 있다(TS 367).”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어와 역사의 관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점이다. 이때 아도르노가 말하는 진리는 의식에 주어진 어떤 직접적인 것도, 불변하는 그 무엇도, 사회 전체의 의지와 같은 어떤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늘 변화하는 사태성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뿐인데, 그에 대한 논거를 우리는 『부정변증법』의 한 구절에서 구한다. 진리의 불변성을 제1철학의 망상이라고 비판하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이유인즉, 진리는 “변화하는 사태적인 것

(das Sachhaltige)과 한데 합하여 붙어있는”(ND 50)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낱말과 사물 사이의 동일성을 가정할 수 없는 한, 직접적 진리에 대한 낱말의 요구는 이데올로기로 간주될 따름이다(ND 62 참조).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역사적인 사태 연관성이 낱말 속에 매개되어 있다고 보는 아도르노는 철학자의 낱말 선택 역시 “자신들의 진리의 상태에 따라서만 정당화되는 낱말들을 찾아야만(TS 366)”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철학자의 낱말 찾기가 얼마나 까다로운 작업인지는, 이후 4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낱말 선택에 있어서 “특이체질적인 정확성(idiosynkratische Genauigkeit)”(ND 61)이라는 아도르노의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마치 낱말이 사물을 명명(命名)해야 하는 것처럼 철학자는 “특이체질적인 정확성”을 갖고 낱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관념론적 언어 구상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을 요약해보도록 하자. 관념론은 철학자의 편에서 그/그녀가 선택하는 낱말들에 관하여 주관적인 의도성의 계기를 지나치게 특권화 하는데, 이때 주체의 자유라고들 하는 것은 낱말과 역사 및 진리와의 관계에 의해서 반박된다. 이로써 아도르노는 언어의 역사적 차원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결여한 관념론을 무(無)역사적인 것으로 특징짓는다. 이와 같은 아도르노의 비판은 초기 하이데거의 언어 구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도르노는 관념론과 존재론이 공히 유사한 두 가지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낱말들에 대한 주관적인 의도성의 계기의 지나친 특권화로 인한 언어의 역사적 차원에 대한 진지한 고찰의 결여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낱말과 사물 사이의 없어서는 안 될 관계의 생략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언어 구상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아도르노의 비판의 예봉은 서구 철학의 관습적인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낱말들을 고도의 철학적인 낱말들로 변형시키려는 하이데거의 시도가 갖는 무(無)역사성이라고 간주된 것을 겨냥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언어에 대한 접근방식은 일견 낱말들의 역사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처리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도르노는 그

처리방식이 “개인으로부터 철학의 새로운 언어를 세우려고 노력함으로써 낱말들의 역사적인 문제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한, 동일한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TS 368)고 주장한다. 여기서 아도르노는 초기 하이데거의 광범위한 신조어(新造語)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는 철학자의 새로운 언어가 언어의 발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이데거가 발명한 신조어는 “낱말에 대한 역사의 힘을 인정하기는 하되 그저 걸보기에만 역사 앞에 보장되는 어떤 사적인 »구체성«으로 그것 [역사의 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언어의 발명”(TS 368)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하이데거의 신조어 사용은 철학자의 자유와 의도성의 정도를 나타내 보인다는 점에서 의도성이라는 현상학적인 문제에 대한 하이데거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초기 하이데거에게서 언어의 문제는 이와 같은 관심사로부터 무비판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이데거의 시도를 무역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아도르노의 비판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도르노의 1932년 칸트 학회에서 의 강연문 「자연사의 이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그는 역사를 역사성에 종속시키는 대가를 치르고서 존재와 시간을 매개시키려고 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1927)의 시도가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역사성이라는 주관적인 범주 아래 파악된 역사적인 존재는 역사와 동일해야만 한다”<sup>14)</sup>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간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존재론화 된 시간성(혹은 역사성) 사이의 차이가 말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성 개념에 의한 역사의 대체를 아도르노는 「테제」 중 여섯 번째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이데거의 언어는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는데도 역사로부터 달아난다. 그의 용어법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모조리 관습적인 철학적 및 신학적인 용어법 — 던지시 내비치고 있는 그 용어법은 낱말들을, 그것들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형성하는데 —의 장소이다(TS 368).”

14) Adorno, “Die Idee der Naturgeschichte,” 전집 1권, 353쪽.

그렇다면 도대체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철학자의 언어는 어떻게 역사와 진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역사 및 진리에 대한 언어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와의 객관적인 관계의 물음 또한 고려해 넣어야 하므로 다음 절에서 우리는 먼저 아도르노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된 “소통가능성(Kommunizierbarkeit)”의 문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 2.2. 언어의 변증법적 성격: “낱말들의 미적인 위엄”

아도르노가 시종일관 강조하듯이, 철학은 사회적 노동 분업, 즉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에 의해 강화된 분업의 일부분으로서 사회와 통합되어 있다. 이때 아도르노가 당면한 문제는 “동질적”이며 “원자화되어” 있고 “와해되어”(TS 367) 있는 사회에서 철학적 언어의 사회적인 소통가능성의 문제이다. 이런 사회에서 철학적 언어의 사회적인 소통가능성 내지 “이해가능성(Verständlichkeit)”에 대한 요구를 아도르노는 관념론적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요구는 “동일한 대상이 상이한 방식으로 적합하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는 대상과 분리될 수 있다고 상정하는 언어의 기호의미적 성격에서 비롯되기”(TS 367) 때문이다. 철학적 언어의 이해가능성에 대한 이런 관념론적인 요구에 대한 언급에 뒤이어 아도르노는 하이데거의 시도를 암시하는 “칭취된 존재(Vernommensein)를 고려해 언어를 형성하는” 것이 “낱말들의 존재론적인 구속성의 상태를 — 이 상태는 곧장 낱말들 자체의 무력함에 의해 취소될 텐데 — 낭만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는”(TS 367)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만약 사회가 비판의 대상이라면, 그리고 사회가 객관적으로 비(非)진리라면, 철학적 언어는 통용되고 있는 언어적인 형식과 양태에 자신을 적합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회의 ‘거짓된’ 객관성을 그 자신의 객관성에 대한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철학적 언어가 객관성 혹은 소통가능성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도르노는 다른 종류의 객관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언어를 »이해 되게« 만드는 객관성, [즉] 철학자에게 낱말들을 일의적으로(eindeutig)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객관성”(TS 367)이 그것이다. 그는 이런 객관성이 요구될 수도 없거니와 미리 주어질 수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것은 낱말들의 역사적인 진리내용, 즉 오늘날 언어의 타락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것의 회복을 간접적으로 가리킬 그런 역사적인 진리내용에 따라서만 규정될 수 있다. 아도르노에게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철학적 언어, 그리고 언어 일반의 소통가능성이 막힌 어떤 사회에서 소통가능성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의 한계일 것이다. “달한 사회 없이는 어떤 객관적인 언어도, 따라서 정녕 이해 가능한 언어도 있지 않음”(TS 367) 때문이다.<sup>15)</sup>

만약 “대상 및 사회와 언어의 일치에 대한 추상적으로 관념론적인 요구가 실제 언어의 현실과 정반대”(TS 367)라면 이제 아도르노는 사물화 하는 낱말을 피하거나 아니면 사물화에 굴복하지 않는 종류의 언어를 상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관념론과 존재론의 비판적인 언어의 결핍에 대응하려고 시도하는 언어 구상으로서 아도르노가 맞대응시킨 것이 바로 **형상적인 언어**(konfigurative Sprache)이다. 그렇다면 이 형상적인 언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언어에 대한 아도르노의 기본 구상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포함한다. 첫째, 주관적인 의도의 포기, 다시 말해 언어의 유물론적 성격과 둘째, 역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에 덧붙여 셋째, 낱말과 사물의 변증법적인 통일이 그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유로운 주관적인 의도성에 맞서 철학자의 언어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낱말들 안에서의 역사의 힘, 그것들의 현재의 역사적 상태이다. “역사가 그를 결합시키는 낱말

15) 아도르노의 사회학적인 저술들에서 언급되곤 하는 “달한 사회”는 원시 부족사회나 종족집단과 같은 어떤 통일된 사회를 의미하기보다는 대개 “총체적으로 사회화된 사회의 통일성”(ND 309) 하에 조직된 사회를 가리킨다. 프리데만 그렌츠는 추상적인 교환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기존사회 질서의 구조를 분석하는 아도르노의 사회이론을 “달한 사회의 이론”이라고 일컫은 바 있다. Friedemann Grenz, 같은 책, 17-34쪽 참조.

들의 잔해들이 그[철학자]의 재료이다. 그의 자유는 오직 낱말들에서의 진리의 강압에 따른 그 낱말들의 상여기(Konfiguration)의 가능성일 뿐이다(TS 368).” 그러나 비록 철학자의 언어가 동시대 사회에서 언어의 현재 상태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더라도, 비판을 위한 공간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철학자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아도르노는 “새로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낱말들이 단순한 상여기를 이루어 새로운 진리를 산출하는 것 외에 희망은 남아 있지 않다”(TS 369)고 말한다. 아도르노의 후기 저작에서 사용되는 성위(Konstellation) 개념의 선구자 격인 상여기는 “관습적인 낱말들에 의해서 새로운 진리를 »설명«하려는 의도와 동일시되는 처리방식”도 아니요, “낱말들의 불굴의 위엄을 전제하는 명시적인 처리방식”(TS 369)도 아니다. 이 상여기는 한편으로는 사물과의 긴장 속에 낱말을 위치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낱말 자체의 역사적인 내용과의 긴장 속에 낱말을 위치시킴으로써, 아마도 철학적 언어가 감히 직접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시도인 듯 보인다.

그리하여 아도르노는 형상적인 언어와 더불어 존재론 및 관념론과 연관된 언어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관습적인 낱말들과 말없는(sprachlosen) 주관적인 의도에 맞서, 상여기는 제3의 길이다: 매개를 통하지 않은 제3의 길(TS 369).” 여기서 우리는 아도르노가 변증법적인 처리방식을 말하면서도 매개 과정이 없는 변증법적인 처리방식을 말하고 있음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즉 상여기는 대립되는 개념들 사이의 매개의 결과가 아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매개가 아도르노의 후기 철학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매우 당혹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초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관습적인 낱말들에 무비판적으로 기대어 있다면, 관념론은 기호의 자의적인 성격을 뒷받침하는 사물화 된 언어이론의 형태를 띤다는 아도르노의 양날을 지닌 언어비판을 염두에 둘 때, 특히 후자의 비판은 형상적인 언어가 매개 없이 낱말과 사물을 연결시키려는 것이라는 아도르노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관적인 의도에 의한 언어의 일면적인 구성, 즉 관념론이 매개라고 참

칭한 ‘구성’이다. 이와 같은 매개 개념과 대조적으로, 아도르노는 형상적인 언어를 “개념과 사물의 변증법적으로 얽히고설킨 풀릴 수 없는 통일”(TS 369)이라고 간주한다.

그렇지만 아도르노가 제안한 형상적인 언어가 낱말과 사물의 무(無)매개적인 통일을 꾀한다면, 그것은 철학적 언어를 미적인 영역에 좀더 가까이 데려갈 것이다. 결국 아도르노는 와해된 언어의 구제 가능성을 낱말들의 미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언어비판은 단지 사물들에 대한 낱말들의 »일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낱말들 그 나름대로의 상태에도 해당한다; 우리는 낱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얼마만큼이나 낱말들이 그것들에게 기대(期待)된 의도들을 지닐 수 있는지, 얼마만큼 낱말들의 힘이 역사적으로 소멸되어 있는지, 얼마만큼이나 낱말들이 이를테면 형상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지를 말이다(TS 369~370).”

이와 같은 낱말들의 역사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을 일컬어 아도르노는 “**낱말들의 미적인 위엄**(die ästhetische Dignität der Worte)”(TS 370)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낱말과 사물이 가장 직접적으로 결합되며, 언어의 사태성(Sachhaltigkeit)과 감각성이 그것의 사물화에 맞서 가장 충분히 보존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철학적인 언어비판의 증대하는 의미가 예술과 인식의 시작하는 수렴으로서 공식화”(TS 370)되기에 이르는데, 이 인식과 예술의 수렴은 예술은 물론 철학에서도 진리의 물음을 전면에 내세운다. “예술이 인식의 성격을 획득”(TS 370)하더라도 진리가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면, 미적인 낱말들의 가장 잘 엮어진 상영기 안에서조차 진리는 말없이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적어도 아도르노 사상의 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가 “진리의 탈은폐를 형식적 및 개념적인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미적인 사건으로 여기는”<sup>16)</sup>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철학도

16) Peter Uwe Hohendahl, *Prismatic Thought*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5), 225쪽.

이러한 진리의 형용불가능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미적인 상여기는 낱말과 사물의 매개되지 않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철학은 언어와 진리의 무매개적인 통일로 스스로를 변모시켜야만 하며 [...] 자신의 진리를 변증법적으로 언어에 맞서 측정해야만 하기”(TS 370) 때문이다. 낱말과 사물의 형상적인 통일에 의해 제기된 도전은 “오늘날 모든 진지한 철학적 언어의 급진적인 어려움을 강제적으로 조건 짓는다(TS 369).” 이는 왜 아도르노 자신의 언어가 그토록 난해한지, 왜 그가 언어적인 문제를 철학의 핵심으로서 강화시키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테제」에서 아도르노는 언어의 사물화를 다루고, 역사에 대한 엄격한 주목과 형상적인 언어의 “미적인 위엄”을 논하지만, 어떻게 언어가 파멸되거나 와해되는지, 혹은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좀더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훨씬 더 상세히 논할 것이다.

### 3. 언어의 역사: 사물화 비판으로서의 언어비판

「테제」에서 잔해들로서 언어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아도르노의 진단과 일맥상통하게 『계몽의 변증법』은 오늘날의 언어를 닳아빠져 “헤어진 언어 (abgegriffene Sprache)”(DA 12)로 묘사한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의 서설 (Vorrede)에서 이미 오늘날 비판적 사상을 표현하는 철학적 언어의 적합성에 대한 의의제기와 그에 대한 대응이 분명히 명시된다. “불가피하게 사상이 상품이 되고 언어는 그 선전이 된 상태에 이르렀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면, 이러한 전략의 과정에 관하여 단서를 찾으려는 시도는 통용되는 언어적·사상적 요구들에 복종하기를 거부해야만 한다(DA 11~12).” 이와 같은 언어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계몽의 변증법』은 서구 문명의 역사를 신화와 계몽의 뒤엎힘으로 재구성한 인류학적인 회고에 못지않

게 언어에 대한 아도르노 초기의 관심사의 개진과 발전 또한 내놓는다. 주술에서 신화로, 신화에서 계몽으로 이행하는 모든 역사적 단계마다, 그리고 계몽의 야만으로의 퇴행의 모든 단계마다 지배형식들은 언어 능력의 등장과 진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낱말과 사물의 다양한 역사적 관계맺음에서 줄곧 추적될 수 있다.

### 3.1. 주술의 미메시스적인 언어: 공포의 외침에서 이름으로

아도르노가 언어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연구를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몽의 변증법』의 첫 번째 단상, 「계몽의 개념」에서 주술의 언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언어의 발생의 초기 단계를 공포의 외침에서 이름으로의 이행으로 읽어낼 수 있다. “언어가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 언어의 지배자는 사제와 주술사이다. [...] 이전에 일어난 것은 암흑 속에 놓여 있다 (DA 37).”

주술사는 주문을 외거나 제스처를 취하면서 무정형한, 알려질 수 없는 다채로운 자연의 무수한 성질을 떠맡으려고 애쓴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미메시스적인 모방에서 이미 재현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그것은 결코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다. “주술에는 특수한 대표가능성(spezifische Vertretbarkeit)이 있기”(DA 26) 때문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신들과 정령들을 모방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들을 진정시키는가이다. “대표하는 것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된 것의 일회성은 그것[대표하는 것]을 급진적으로 구별하고, 그것을 교환 속에서조차 교환될 수 없게 만든다(DA 26).” 그렇기 때문에 주술적인 제의에서 희생제물은 특수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대표하는 것과 대표되는 것 사이의 엄격한 구별도 있지 않다. “주술의 단계에서 꿈과 이미지는 사물의 단순한 기호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사성 혹은 이름에 의해서 사물들과 결합된 것으로서 여겨졌다. 그 관계는 의도의 관계가 아니라 친화성(Verwandschaft)의 관계이다. 주술은 학문처럼 목적을 뒤쫓지만, 그 목적을 미메시스를 통해 계속

추구하지, 객체에 대한 진보된 거리에서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DA 27).”

이와 같은 신화 이전의, 주술적인 단계의 언어를 우리는 미메시스 언어, 혹은 의태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술의 미메시스 언어는 한편으로는 사물과 낱말의 매개되지 않은 통일 상태를 불안정하게나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원시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원초적인 주체가 낯선 것과 대면할 때 부르짖는 “공포의 외침”은 아마도 가장 원시적이고 물질적인 소통 형식을 이룰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 나오는 공포의 외침이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의 이름이 될”(DA 31) 때, 바로 그 낯섬과 타자성에 대한 두려움이 야기한 이 공포의 외침에서 이름으로의 이행은 언어에 그 흔적을 남긴다. 이 공포는 주체를 객체로서의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추동력으로서의 언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그 공포의 외침을 또 한 번 되풀이하는 한, 언어는 공포의 동어반복이다. 바로 여기에서 아도르노는 어떤 근본적인 변증법을 발견한다. “언어는 어떤 것이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와 다른 어떤 것, 즉 동일적이면서도 동시에 동일적이지 않다는 모순을 표현”(DA 31)하는 한에서, “언어는 동어반복에서 언어가 된다(DA 32).” 예컨대 나무가 더 이상 그저 나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증거, 예를 들면 정령이 깃든 장소로서 이야기될 경우, 언어는 나무가 나무이면서 또 나무가 아니라는 모순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각된 언어의 변증법적인 성격은 변증법적 사상의 탄생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변증법의 핵심적인 모순은 언어에 근거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7)</sup> 왜냐하면 “개념은 오

17) 아도르노의 언어 이해는 근본적으로 변증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도르노에게서 변증법과 언어는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자체는 변증법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변증법적인 사상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낳은 언어 자체가 변증법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가정하거나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Michael K. Palamarek은 「아도르노의 언어 변증법」에서 아도르노의 언어이론을 변증법의 언어, 혹은 언어의 변증법으로 정교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Michael K. Palamarek, “Adorno’s Dialectics of Language,” Donald A. Burke et. al.(ed.), *Adorno and the Need in Thinking*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41-77쪽 참조.

히려 시작부터 변증법적 사유의 산물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늘 그것이 아닌 것(was es nicht ist)이 됨으로써만 바로 그것인 바(was es ist)이기”(DA 32) 때문이다.

그러나 공포의 외침에서 이름으로의 이행에서 부각된 언어의 변증법은 “공포의 중복, 공포의 동어반복 자체인 공포의 외침에서부터 전개되는 한 무력하게 남아 있기”(DA 32) 때문에 이미 잠재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하기에 공포를 그 기원에서 직접 대하지 않고 부단히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변증법적 사상은 근본적으로 원시의 두려움에 근거해 있는 사유를 반복하거나 영속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애초의 공포를 자기반성적으로 청산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발전시킨 변증법적인 언어비판의 계기들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기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언어와 사물의 닮음, 사물과 유사한 이름의 동어반복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주술에서 신화로의 이행에서 어떻게 언어가 명칭(Bezeichnung)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지 언어의 역사적 위치 변화를 살펴볼 차례다.

### 3.2. 신화의 책략과 명령의 언어: 인간의 언어 vs. 자연의 말

신화의 세계는 “시민적인 개인의 원형”(DA 61)인 오디세우스가 낫선 자연의 위력과 벌이는 끊임없는 투쟁과 대결의 세계이다. 신화에서 언어의 일차적인 양태는 “보고하고 이름 붙이고 근원을 말하지만 이로써 서술하고 확정하고 설명하는”(DA 24) 이야기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막강한 힘을 지닌 자연에 맞선 영웅의 대결과 그의 궁극적인 승리의 행적과 착취에 다름 아니다. 이때 친족관계의 유사성을 띠고 있는 언어는 책략, 통제, 그리고 명령의 언어가 되어 자연과 신화적인 운명을 굴복시키기 위해, 즉 기만하기 위해 구사된다. 말하자면 이런 언어 화용론으로의 전환의 예를 우리는 다양한 신화적 형상들과 대면한 오디세우스의 에피소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자연, 자아, 그리고 타자에 대한 지배의 양태들이 견고

하게 확립되는 방식을 예시한다. 그 지배는 어떻게 언어의 도구화를 통해서 실행되고 보장되는가?

사이렌과 폴리phem과의 대면에서 구사되는 오디세우스의 거짓말과 권위 있는 명령의 말은 인간의 언어와 자연의 말 사이에 벌어지는 적대적인 투쟁과, 늘 후자에 대한 전자의 승리로 귀결되는 무자비한 결과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연의 막강한 힘과 신화적 운명에 단지 언어만으로는 맞서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합리적이 된 반항”(DA 77)인 책략에 호소한다. 사이렌의 에피소드에서, 그는 자신을 배의 돛대에 묶게 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귀를 밀랍으로 봉한 채 노를 젓도록 명령하는데, 이때 언어를 통한 통제와 사회적 노동에 대한 통제가 같이 간다. “노래의 태곳적 우세한 힘”(DA 78)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이렌의 언어, 이 자연의 오래된 언어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간직하고 있다. 사이렌이 부른 노래가 무엇 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위협적이기도 하고 유혹적이기도 한 그들의 부름소리는 자아와 자연의 무차별적인 통일로 되돌아오라는 애원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짐작해본다. 어쨌든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혼자만 듣는 오디세우스는 그 노랫소리에 “절망적인 절규”(DA 78) 혹은 퇴화된 언어인 제스처로써 응답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중 어느 것도 그의 부하들이 그의 속박을 풀도록 할 수 없다. 오디세우스는 그가 자신에게 부과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고통 덕분에 성공하며, 사이렌은 심중팔구 정복되었을 것이다. 이 신화 속에서 자세히 상술되는 사이렌과 오디세우스의 마주침의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의 힘만이 아니라 그 무력함도 예증한다. 한편으로 오디세우스의 말은 사이렌들을 직접 제압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명령과 속임수의 교활한 말들은 결국 그들의 허를 찌르는 데 간접적으로 소용된다.

오디세우스의 스팅크스와 폴리phem과의 만남에서 기만적인 언어의 힘은 더욱 더 발휘된다. 이 두 경우 애매한 이름의 형태로 된 인간의 언어는 신화적 형상들의 위협적인 도전을 극복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는 단 하나의 낱말로 해결되는데, 그 해답인 ‘인간’은 그

날말의 형식과 내용 둘 다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고지한다. 그리고 폴리phem이 속임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오디세우스가 자신과 그의 일행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의 변증법적인 애매성 때문이다. 폴리phem이 오디세우스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 보자 그는 ‘우테이스(아무도 아님)’라고 대답하는데, 이 대답은 이름을 선언함과 동시에 부정한다. 이 “이름의 술책”(DA 84)이 성공한 이유는 언어의 두 가지 통약 불가능한 질서가 대치되기 때문이다. 폴리phem이 살고 있는 좀더 오래된 신화의 세계에서는 “신화적 운명, 속명이 구어(口語)와 매한가지 것이었다. [...] 운명의 주문(呪文)이 들리는 표상의 권역(Vorstellungskreis)은 아직 날말과 대상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날말은 사물에 대해 직접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표현과 의도는 서로 흘러들어 합쳐진다(DA 78).” 그에 반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날말을 조작하는지 잘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이름에 의도를 삽입함으로써 이름을 주술적인 영역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든다(DA 87).” 이름에다가 ‘영웅’과 ‘아무도 아님’을 “슬쩍 밀어 넣은(unterschieben)”(DA 79) 오디세우스는 동일한 날말이 상이한 것, 이를테면 ‘영웅’과 ‘아무도 아님’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이로써 날말과 사물의 이원론을 깨닫게 된 그는 이제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말들에 매달린다. 이렇게 의도에 대한 의식이 발생한다(DA 79).” 바로 여기에서 아도르노는 언어의 역사적 위치 변화를 포착한다. “언어의 역사적 현 위치는 변한다: 그것은 명칭(Bezeichnung)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DA 78).”

오디세우스 에피소드가 보여주듯이 “달변의 변증법(Dialektik der Beredsamkeit)”(DA 87)으로써 “자신을 보존하려는 책략은 날말과 사물 사이를 지배하는 저 과정을 먹고 산다(DA 79).” 신화 속에서 “날말과 사물 사이를 지배하는 저 과정”이 이미 진척된 계몽이라는 점에서 언어비판을 통해서도 계몽의 변증법의 테제, 즉 “이미 신화는 계몽이었다, 그리고 계몽은 신화論으로 되돌아간다는 두 가지 테제”(DA 16)가 입증될 수 있다. 그 중 두 번째 테제는 언어의 도구화와 사물화를 노정케 한 계몽의 마지막 행보를 살펴보는 다음 절에서 좀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3.3. 계몽의 언어 : 개념적인 대상으로서의 사물과 기호로서의 낱말

“과격하게 된 신화적 불안”(DA 32)으로 간주된 계몽은 대상과 타자에 대한 접근방식을 주관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응고시킨다. 우리는 계몽의 주장들을 언어 속에서,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언어 역시도 자유와 자율성이라고들 하는 것을 상술(詳述)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오디세우스의 책략과 명령의 신화적인 낱말이 자연에 대한 그의 승리에 기여했다면, 그 승리는 체념과 억압을 바탕으로 한 만큼 막대한 희생을 치른 피루스(Pyrrhus)의 승리라고 회자될 만하다. 자연과 별이는 언어적인 대결에서의 자아의 성공은 자신에 대한 억압뿐 아니라 명령하는 낱말을 통한 타자의 억압과 희생을 대가로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낱말과 사물 사이의 통일을 해소시키고 자연의 말과 인간의 언어 사이의 대결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은 계몽이다. 계몽이 그 자신의 이성과 논리의 언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것들이 자연에 대한 통제와 지식의 진보를 보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주술의 단계에서 사물에 대한 유일무이한 특수성을 갖고 있던 이름은 낱말의 미메시스적인 역량과 능력을 상실한 자의적인 명칭이 된다.

“무엇보다도 주술이 묶여 있는 이름 일반은 오늘날 어떤 화학적인 변화에 내맡겨져 있다. 이름은 자의적이고 조작 가능한 명칭으로 변형되는데, 그 명칭의 효력은 이제 계산될 수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태곳적 이름의 효력만큼이나 제멋대로 독단적이기도 하다(DA 188).”

언어는 한때 사물과 낱말의 합일 속에 있었던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지칭하는 명칭들로 변형된 것이다. 낱말과 사물이 분리된 계몽의 언어는 형식주의로 특징지어진다. “낱말들이 갖는 항구적인 구속력은 [...] 낱말들이 그때그때 충족시켜야 하는 내용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든지 또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모든 내용과 관계를 맺는”(DA 79) 한에서 형식주의적이 된다.

“오디세우스는 발전된 시민사회에서 형식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낱말에서 발견한다. 낱말의 영속적인 구속력은 그것[낱말]이 그때그때 충족시켜야 할 내용에서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둔 채 가능한 모든 내용과 관련됨으로써, 예컨대 아무도 아님(Niemand)이든 오디세우스 자신이든 그것과 관련됨으로써 [응분의] 값을 치른다(DA 79).”

그런데 계몽의 개념어가 정밀함과 정확함을 주장하면 할수록 낱말과 사물 사이의 깊은 구렁은 더욱 더 넓어지며 사물에 대한 낱말의 승리는 더욱 더 완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 사물은 개념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며, 낱말은 자신의 사태성의 마지막 흔적을 탈피하고 순수 추상적인 기호가 되기에 이른다. 바로 이러한 낱말의 기호로의 변형이야말로 언어의 도구화와 사물화를 노정케 한 계몽의 마지막 행보이다. 이로써 기호로서의 낱말은 이름을 단념하고 「테제」에서 다루어졌던 기호의미적 언어처럼 교환 가능한 자의적인 언어적 단위가 되며, 이름의 유일무이한 특수성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던 주술의 미메시스적인 언어의 특수한 “대표가능성은 보편적인 대체 가능성으로 급변한다(DA 26).” 마침내 낱말은 사물을 전적으로 대표하고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짐으로써 사회적인 지배의 대응물로서 낱말의 도구화는 정점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인 발전들은 언어, 주체, 그리고 사회의 사물화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낱말이 사물과 맺는 상이한 관계의 다양한 상여기는 그 자체 언어의 역사의 척도이며, 사회적 사물화의 지표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계몽의 변증법』의 이야기를 언어의 역사이자 그 가운데 드러나는 사물화 과정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언어비판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끝으로 낱말의 기호로의 변형의 중요한 한 가지 귀결로서 아도르노가 지적한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두 개의 구별되는 영역, 즉 과학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으로 갈라진 언어의 역사적 상태에 대한 그의 지적은 언어의 돌이킬 수 없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적 사상의 기관으로서 언어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기호로서의 낱말은 과학으로 나아가며, 음(音)으로서, 그림으로서, 본래의 낱말로서의 그것[낱말]은 여러 상이한 예술들 아래 나뉘어 지는데, 예술들의 첨가를 통해서, 공감각 혹은 종합예술을 통해서 언젠가 그것[낱말]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기호로서의 언어는 자연을 인식하기 위해서 계산에 몸을 맡기며, 자연과 유사해지려는 요구를 저버려야만 한다. 형상(Bild)으로서의 언어는 완전히 자연이기 위해서 모상(Abbild)에 몸을 맡기며 자연을 인식하려는 요구를 저버려야만 한다(DA 34).”

Jarvis가 논하듯이 과학과 예술, 이 각각의 영역은 언어를 똑같이 일면적인 기능으로 한정한다.<sup>18)</sup> 즉 기호로서의 언어에 한정된 과학은 대상의 통제를 위해서 대상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절단하며, 자신의 처리방식과 목표가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형상으로서의 언어에 한정된 예술은 대상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무력한 이미지의 형식으로 남는다. 여기에서는 형상적인 언어가 인식의 성격을 획득한다고 주장하는 「테제」와 달리 대안적인 언어의 가능성이 그렇게 쉽게 보장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계몽의 변증법』에서도 분명 화해의 유토피아를 위한 언어의 해방의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계몽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다음 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한다.

18) Simon Jarvis, *Adorno: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1998), 26쪽. 여기에서 Jarvis는 과학과 예술 영역에 상응하는 언어를 각각 ‘담론적인 언어(discursive language)’와 ‘미메시스적 언어(mimetic language)’라고 일컫는다. 이와 같은 언어의 분리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담론적인 언어에 자신을 한정하지 않는 과학은 한낱 꾸며낸 이야기(fiction)로 이해될 것이며, 미메시스적 언어에 자신을 한정하지 않는 예술은 과학의 영토를 비예술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구분은 서구의 근대적인 합리성의 맥락에서 예술과 과학의 분리를 이해하는 한 방식일 뿐, 「테제」에서 ‘기호의미적 언어’와 ‘형상적인 언어’라는 아도르노의 구분에 상응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3의 길”로서 아도르노가 제안한 ‘형상적인 언어’는 양자의 구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 3.4. 계몽의 또 다른 이야기

철학적 언어가 예외 없이 그 자체 언어의 도구화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지속되어 온 지배의 역사에 속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계몽의 변증법』의 논의는 이것으로서 모든 이야기를 끝맺지 않는다. “가장 검은[어두운] 책”<sup>19)</sup>으로 정평이 난 『계몽의 변증법』이 겉으로는 더없이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록 희미하게나마 도처에서 언급되는 계몽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철저히 다른 형태의 삶, 바로 유토피아적인 삶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계몽의 변증법』은 신화와 계몽의 뒤얽힘의 파국적인 귀결을 예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성 개념에 담긴 비밀스런 유토피아”(DA 103)를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때 계몽을 위한 사상과 실천을 고무했던 유토피아가 계몽으로부터 완전히 절멸되지 않았다는 아도르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믿음은 “사회 속에서의 자유가 계몽적 사유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DA 13)는 인식에 근거한다. 무엇보다 계몽의 자원들은 지배의 강박적인 반복을 깨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모든 것을 포착해야 하는 지배의 도구들인 언어, 무기, 결국 기계는 모든 사람에 의해 포착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지배 속에서 합리성의 계기는 그것과도 상이한 계기로서 자신을 관찰시킨다. 수단을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의 대상성, 모두를 위한 수단의 »객관성«은 이미 지배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며, 그 수단으로서 사유는 깨어났던 것이다(DA 54~55).”

따라서 언어는 권력의 도구로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물론 나아가 화해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을 부단히 가리킬 수 있다. 그

19) 위르겐 하버마스(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서울: 문예출판사, 1995), 136쪽.

가능성을 찾아보자면, 먼저 주술적인 사유에서 낱말과 사물의 미메시스적인 통일은 자연의 통제를 목표 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에 저항하지 않고 압도되는 것도 아니기에 잘 해야 중립적이다. 그 다음으로 신화는 「오디세우스 또는 신화와 계몽」의 마지막 단락을 참고할 때 행위를 이야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간의 단절과 침묵 속에서 그 행위에 의해 야기된 고통의 메아리를 기록한다. 끝으로 오디세우스의 교활한 힘들은 그 절정에 이르러 비록 신화적 및 자연적 형상들의 파괴로 귀결되지만, 대안적인 자유의 희미한 가능성은 그와 다른 것으로 통하는 방향을 일부러 선택하는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자”(DA 86)로서 묘사되는 오디세우스는 기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오디세우스의 또 다른 이면은 말하자면 언어의 사물화에 침묵으로써 응수하는 무언의 대화자일 것이다.

이처럼 언어의 사물화에 저항하거나 극복하는 언어의 상반된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공존한다. 그리고 이는 “유토피아의 현실적인 가능성, 즉 지금, 여기에서, 생산력의 상태에 따라서 곧바로 지구가 낙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총체적인 파국의 가능성과 가장 첨예하게 합일되어 있는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의식”(ÄT 55~56)을 전제로 할 것이다. 물론 아도르노는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의 잠재력에 대한 암호를 무엇보다도 새로운 예술에서 찾고자 했지만, 이때 철학적 언어는 유토피아를 말하기 위한 비판적 사상의 기관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것, 즉 유토피아를 말하는 예술의 절대적인 부정성”(ÄT 56)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4. 철학적 언어의 과제와 대안적 언어의 가능성

“철학은 언어적 노력 없이는 살아남지 않음”(ND 65)을 강조하는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유에 대해 비판하는 『부정변증법』에서 언어의 문제를 한층

더 본질적으로 제기한다. 왜냐하면 동일성 사유에 대한 그의 비판은 이와 같은 비판을 가능케 하는 매체로서 언어와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언어 속에서 어떻게 사유가 사물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사물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관건은 어떻게 결코 언어가 아닌 것, 이를테면 사물, 비동일자, 혹은 타자성 자체로서 던져진 것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키지 않고서 표현하거나 서술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ND 21) 하는 과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역설적인 시도가 『부정변증법』인 것이다. 그리고 『부정변증법』은 아도르노의 성숙한 철학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간주되는 만큼, 그의 이전 저작에서 다루었던 언어의 문제들이 한결 철저하게 다듬어진 텍스트로서 그 형식과 내용 둘 다에서 어떻게 철학적 언어가 유토피아적인 화해를 위한 비판적 사상의 기관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함축적 언어철학”으로 읽힐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부정변증법』 읽기는 아도르노의 언어 이해에 있어서 유물론적인 차원을 강화하는 언어와 고통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4.1. 철학적 언어의 과제

앞서 『계몽의 변증법』에서 지적된 언어의 역사적 상황, 즉 두 대립되는 영역, 과학과 예술의 영역으로 갈라져 기호로서의 언어와 형상으로서의 언어로 구분된 언어의 역사적 상황은 「테제」에서 제기된 문제인 와해된 언어의 구제 가능성을 다시금 제기한다. 철학적 언어는 “진리를 학문적 체계와 동일시하는”(DA 104) 과학과 동맹하든지, 아니면 말하는 능력을 전부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고서 이미지를 통해서만 자신의 진리를 표현하는 예술과 결탁하든지 양자택일할 수 없다. 아도르노가 추구하는 철학적 언어는 아마도 이들 두 영역의 언어 사이를 교섭하고 매개하는 무엇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와해된 언어의 구제 가능성의 문제를 철학적 언어의 과제로서 좀더 직

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도르노의 「테제」와 『계몽의 변증법』은 이 문제에 관한 용어들을 낱말과 사물의 다양한 역사적 짜임관계 속에서 진척시키기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에둘러 말하고 있을 뿐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어의 사물화에 저항하거나 극복하는 언어를 명시적으로 말하려는 도전은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가 된다. 아도르노는 이 어려운 과제를 자신의 초기 모델인 상역기를 재고찰하는 한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성위 개념을 그것과 언어의 유사성에 의거해 재정비함으로써 수행하고자 한다. 언어 문제를 다루는 아도르노의 초창기 시도는 대개 벤야민과 연관해 논의되지만, 고통과 언어의 본질적인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아도르노의 언어이론에 접근하는 우리의 논의에서 벤야민의 영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다만 아도르노의 언어 이해가 성위(Konstellation)로서의 ‘이념’, 언어-이름으로서의 ‘이념’ 서술의 방법을 진리내용과의 연관 속에서 제시하는 벤야민의 『독일 비애극의 원천』의 「인식비판서설」에 큰 빛을 지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아도르노의 “합축적 언어철학”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적인 성위에 대한 서술이 고갱이로 자리 잡은 그런 이론일 것이라는 점이다. 성위와 언어 사이의 유사성에 천착한 아도르노의 작업은 언어에 접근하는 그의 주된 주제와 관심사의 결정체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위에 대해 아도르노는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개념 자체에 대해 자세히 따져 묻기를 거부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도르노의 성위 개념의 윤곽을 그것이 관계 맺고 매개하는 다른 용어와 대상, 그리고 문제들로부터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성위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일 수 있는지는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 혹은 무엇이 아직 아닌지에 의해서도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대안적인 언어의 가능성으로서의 성위가 어떻게 철학적 언어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4.2. 대안적인 언어의 가능성으로서의 성위

어떠한 이의 없이 동일성의 조건으로서 주체를 우선시하는 철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도르노는 “객체의 우위”(ND 184)를 선언하며 그것이 대상화된 역사적 조건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먼저 낱말과 사물의 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할 때 개념과 대상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듯 행세하는 주체와 마찬가지로 낱말은 사물과 헤아릴 수 없이 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낱말이 사물을 완전히 재현하거나 정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언어의 실증성은 거부될 수밖에 없다.

“그처럼 사물 속에 흐르는 역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려고 지극히 노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 낱말들은 여전히 개념들로 머물러 있다. 개념의 정확성은 사물의 자기 자신으로 있음(Selbstheit)을 대체하려고 하지만 사물이 완전히 현재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개념들과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것 사이에는 텅 빈 공간이 벌어져 있다(ND 62).”

만약 사물이 그것을 언어로 데려가려는 노력에 저항하거나 심지어 휘방을 놓는다면, 언어는 아무리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더라도 사물의 저항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모순이 오늘날 언어의 가능성을 조건 짓는다. 더군다나 사물화 된 언어 일반의 상태를 놓고 볼 때, 사물에 적합한 낱말에 대한 모범이 되는 원리도 없거니와 그에 대한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념들의 규정 가능한 오류는 또 다른 개념들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속에서 성위들이 생겨나는데, 이름의 희망으로부터 오로지 성위로만 무엇인가 넘어 갔다. 철학의 언어는 그것[이름]의 부정을 통해서 그것 [이름]에 가까이 접근한다(ND 62).”

즉 낱말과 사물의 비동일성 혹은 불일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낱말을 통해서 사물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름과 사물의 주술적인 뒤얽힘은 지칭하는 이름, 곧 명칭으로 대체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젠가 이름이 사물과 화해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부정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사물에 접근하는 하나의 길로서 제시된 언어적인 성위는 낱말들을 정확히 배치하고 반복하면서 낱말들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물에 조심스럽게 가까이 접근하여 이름의 희망을 기약한다.

이처럼 낱말과 사물의 매개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적인 성위는 언어의 객관성을 형성하는데, 이 객관성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이에 대한 모델로는 언어의 태도(das Verhalten der Sprache)를 지적할 수 있다. 언어는 인식기능들을 위한 단순한 기호체계에 머물지 않는다. 언어는 하나의 사물을 중심으로 개념들을 설정해놓는 관계를 통해 개념들에 객관성을 만들어준다. 이로써 언어는 뜻한 바를 완전히 표현하려는 개념의 의도에 기여한다(ND 164).”

여기서 객관성은 확실히 성위의 형상이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낱말과 사물을 중심으로 설정된 개념들의 관계, 곧 언어적인 성위는 낱말들로 하여금 비(非)규정적인 형식이 되어 마찬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언어의 내용을 표현하도록 만든다. “개념은 그 이상의 것(das Mehr)이 될 수 없는 만큼 바로 그것이 되고자 하는데”(ND 164), 성위는 개념 그 이상의 것, 그리고 “뜻한 바를 완전히 표현하려는 개념의 의도”(ND 164)를 돕는다. 이 그 이상의 것은 비동일자, 또는 끝까지 해소될 수 없는 잔여물이라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이제 아도르노는 변증법적인 사유가 어떻게 비동일성의 환원불가능성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언어와 변증법 사이의 내밀한 관계이다. 이미 『계몽의 변증법』에서 시사된 것처럼 언어와 변증법의 동시발생은 “변증법의 가장 단순한 낱말 뜻이 언어를 상정한다”(ND 165)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변증

법은 A와 A가 아닌 것, 다시 말해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매개되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부여받는다. 비동일자는 끝까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가운데, 맞닥뜨리는 모든 것을 동일성의 제명(題名) 하에 데려가는 개념의 변증법적인 운동에 저항한다. 이와 같은 억압에 맞서, 비동일자는 그 자신의 비동일성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비동일자가 자신의 비동일성과 맺는 관계는 Palamarek의 표현대로 “일종의 무언의 대화”<sup>20)</sup>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것[비동일자]은 개념에 의해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ND 165) 때문이다.

비동일자는 자신의 저항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로서 소리(Laut)를 추구한다. [...] 비동일자 가운데 그것의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은 그것의 개별적 현존재를 넘어서는데, 그것은 개념과의 양극관계 속에서 비로소 개념을 응시하면서 그것[개별적 현존재] 속으로 움츠러든다(ND 165).” 이런 비동일자를 개념화하는 대신, 부정변증법은 그것에게 스스로를 표현할 언어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유한다는 것은 동일화하는 것”(ND 17)이기에 비동일자를 사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일말의 개념 하에 데려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에조차 저항하는 비동일자는 개념적인 사유의 한계를 가리킨다. “비동일자의 내부는 그것조차 아닌 것과 그것[비동일자]이 맺는 관계이며, 그것의 조작되고 경직된 자기와의 동일성이 그것에게 주지 않고 있는 것과 그것이 맺는 관계이다(ND 165).” “비동일자의 내부”를 설명하는 이 복잡한 인용문은 실로 더없이 부정적인 비동일자의 비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비동일성의 비동일적인 면은 자기동일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변증법으로부터도 달아나는, 그러나 부정변증법이 그 쪽을 향해 눈길을 보내는 타자성을 가리킨다.

“실제로 사상이 사물에게 자신을 넘겨주고, 사물의 범주가 아니라 사물에 향해 있다면, 객체는 사상의 머무르는 시선(verweilenden Blick) 아래 스스

20) Michael K. Palamarek, 같은 책, 67쪽.

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ND 38).”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스스로 말할 공간을 부여받은 사물들은 무엇을 말할까? 아마도 사물들은 정령 자신에 적합한 언어 덕분에 가까스로 그들 자신의 고통과 고통 일반의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 진통을 겪는 자연에 대해서, 학대당하는 몸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타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서 말이다. 말하자면 사물에 대한 일종의 팩시밀리라고 할 법한 언어적인 성위 안에서 낱말들은 사물의 특수성과 그 특수성의 억압의 역사를 복사한다. 사물에게 가해진 손상과 그것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질식시켜온 고통의 침전된 역사는 성위를 이룬 언어의 내용이다. 고통과 그 고통의 표현에 대한 주체의 욕구를 통해서 비로소 사물은 주체의 반대 면과 연관관계를 맺는다.

“자유는 주체의 표현충동에 따른다. 고통이 말하도록 하려는 욕구가 모든 진리의 조건이다(ND 29).”

매우 심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의 경험을 상기해 보면, 고통의 경험은 무엇보다 살아 있는 개인으로 하여금 육체의 계기를 일깨운다. 고통에 집중되어 있는 ‘나’는 육체로부터 구별되어 정신으로 실체화된 사유하는 주체라기 보다는 다만 육체적 존재로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살아 있는 개인으로서 겪은 고통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보편성과 우월성을 확립했던 주체의 자기 동일성은 무너진다. 이와 더불어 고통의 경험은 주체와 객체를 비의도적으로 관계 지우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고통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개념적인 것과 개념의 간극을 절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개념과 비개념적인 것의 차이를 자각하는 개인의 의식은 아도르노의 표현대로 “늘 거의 언제나, 그리고 당연히 불행한 의식”(ND 55)이지만, 개념의 불충분성을 확실히 자각한 의식은 개념적 사유의 동일성의 마법에서 벗어나 인식의 유토피아를 위한 비판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도르노가 말하는 인식의 유토피아는 “비개념적인 것을 개념들을 가

지고 열어 보이되, 그것을 개념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ND 63~64)이다. 바로 여기에서 아도르노는 개념이 진리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한다. 그는 “개념들에 의해 억눌리고 경멸당하고 배척당한 것”(ND 63)을 무대로 해서만 개념들의 추상적인 범위를 넘어 진리에 관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도르노는 객체가 당한 고통이 주체에게 짐 지워진 객관성으로서 주체의 표현 속에 매개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순전한 표현적 계기, 즉 비개념적, 미메시스적 계기는 단지 서술(Darstellung)<sup>21)</sup>을 — 언어를 — 통해서만 객관화되기”(ND 29) 때문에 철학은 사물, 주체,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언어로 표현해야만 한다. 아도르노는 자신의 사물화에 대해 어떻게든지 저항한 개인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마지막 간주관적인 계기를 다룬다. 그들이 떠맡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도덕적으로 노력하여, 자신이 대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없거나 현실적 정의 때문에 보지 않으려는 바를 대표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해야만 한다(ND 51).” 고통을 정당하게 다루라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정변증법의 언어는 표현과, 아도르노가 “정연성(Stringenz)” 혹은 “엄격성(Rigor)”이라고 언급한 것 사이를 매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성위에서조차 낱말들의 부정확성에 직면해 언어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뉘는 “특이체질적인 정확성(idiosynkratische Genauigkeit)”(ND 61)의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낱말 선택에 있어서나 서술 전체에 있어서나 자의와 관계성이 침전물로 남는”(ND 62) 잔여물의 형태를 띤다. 그러하기에 주체의 표현에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지만 말살되지는 않는다. 이는 왜 아도르노가 엄격한 변증법적 사유를 위해 수사법적인 요소를 회복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통찰을 준다.

21) 재현과 서술 사이의 차이는 아도르노가 천착했던 낱말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핵심적이다. 재현은 사물의 자리에 동일화하는 용어를 대신하는 데 반해, 서술은 그것과의 매개된 직접성을 목표로 하여 나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Darstellung의 번역어로서 사용되곤 하는 ‘재현’은 오도할 우려가 있으며, ‘제시’는 그 과정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마치 한 순간 포착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변증법, 그 낱말 뜻 그대로 사유의 기관으로서의 언어는 수사법적인 계기를 비판적으로 구제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사물과 표현을 무차별한 상태로까지 서로 가까이 접근시키려는 시도. 변증법은 역사적으로 사유의 흠집으로 보이는 것, 즉 그 무엇에 의해서도 완전히 깨뜨러지지 않을 언어와 사유의 연관관계를 사상의 힘에 바친다(ND 6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언어와 고통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춰 『부정변증법』을 읽을 때 아도르노의 언어 이해의 무물론적인 차원이 여실히 드러난다. 아도르노의 철학의 추진력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말하도록 하려는 욕구”(ND 29)일 것이다. 그것은 고통이 말하도록 하는 언어에 대한 욕구이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언어의 문제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심은 비교(秘敎)적이지 않다. 아도르노에게 언어는 고통의 모순에 대한 비판에서 고통을 극복하도록 밀어 해치고 나아가기 위한 비판적 사상의 기관이지, “존재의 집”이라든지 “인간 본질의 거처”와 같은 존재론적인 무엇이 결코 아니다. “그것[철학]의 목소리는 대상에 청종(聽從)해(gehört) 있되 그 대상의 의지 없이도 그러하다; 그것은 철학의 목소리가 없이는 소리 나지 않지만 조용히 승리를 거둔 모순의 목소리이다(DA 281).” 낱말과 사물 사이의 차이가 차츰 사라질 가능성, 말하자면 낱말과 사물의 화해가 유평피아의 가능성의 언어적인 기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언어는 낱말과 사물의 비동일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의 동일성과 소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 역사적으로 완수된 것은 아니기에 더욱 더 필요한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유에 봉사한다.

## 5.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아도르노의 언어이론을 재구성하기 위한 어떤 해석적인 열개를 마련하고자 언어에 대한 그의 기본 구상에서 출발해, 사물과 낱말이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점점 더 와해되어 가는 언어의 역사, 그리고 언어의 사물화에 저항하거나 극복하는 대안적인 언어의 가능성으로서 제시된 그의 성위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 한 편의 글에서 언어에 대한 아도르노의 다양한 주제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특히 낱말과 사물 사이의 다양한 관계맺음에 대한 그의 역사철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볼 때 그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변증법적이고 유물론적인 시각에 입각해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시각은 언어와 고통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더욱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는 언어 문제에 접근하는 아도르노의 비판적 관점이 간접적으로는 사회비판, 도구적 이성 비판, 문명사 비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개념에 의한 동일성 사유 비판 및 인식비판과 불가분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비판들은 아도르노의 이론 전체에 내재해 있다고 보아도 좋을 사물화 비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아도르노를 “함축적 언어철학”을 제시한 언어이론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언어와 철학의 친밀한 상호관계에 대한 그의 남다른 의식 때문이다. 이는 철학적 용어법을 주제로 한 그의 일련의 강의록에서 더욱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그는 “철학에 있어서는 언어가 본질적이기에 철학적 문제들은 상당 부분 그것의 언어의 문제들이다”<sup>22)</sup>라고 말한다.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언어적인 전회』(1967; 1992)의 서문에서 “언어철학(linguistic philosophy)”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한정하 바 있다. “철학적인 문제들은 언어를 바로잡아 고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좀더 이해함으로써 해결될(혹은 해소될) 문제들이라는 견해”<sup>23)</sup>가 그것이다. 그 옹호자들에 의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발견”<sup>24)</sup>이라고 간주되는 이런 의

22) Adorno, *Philosophische Terminologie*, 1권(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1997), 7쪽.

23) Richard M. Rorty, “Introduction: Metaphilosophical Difficulties of Linguistic Philosophy,” ed. Richard M. Rorty, *The Linguistic Turn: Essays in Philosophical Metho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1992), 3쪽.

24) Richard M. Rorty, *Ibid.*

미의 언어철학에 대해서라면 아도르노는 일종의 비판적인 평형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아도르노의 에세이 「철학자의 언어에 대한 테제들」은 비록 언어에 대한 관념론적 구상과 존재론적 구상을 언어비판의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주로 의미론과 화용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시대 철학의 언어적 전회의 다양한 이론적 흐름에 대한 선견지명 있는 비판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sup>25)</sup> 물론 언어의 문제들, 가령 재현, 의미, 소통, 표현 등의 문제는 당연히 철학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언어적 차원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사유될 수 있는 것의 형식과 내용을 조건 짓는 언어적인 한계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고 했던 초기 비트겐슈타인에 맞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도르노는 개념과 언어의 포착을 넘어 달아나는 타자의 목소리를 구제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이처럼 개념의 동일성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비개념적인 비동일자를 철학의 진정한 관심사로 복권하고자 한 아도르노의 시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언어철학자들의 언어이론에서 볼 수 없는, 언어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에 대한 아도르노의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일 수 있는 인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작업, 그것도 언어철학 일반의 문제 지평 속에서 비판적으로 논증해내는 작업은 이 논문이 더욱 더 진전시켜야 할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의식철학에서 언어철학으로의 이행을 전제로 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의 이론적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판이론의 의도를 진척시키기 위해 그 중심에 언어분석적인 모티브를 끌어들이는 시도로 간주되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

25) 언어철학의 배경에 대해서는 Friedrich Glauner, *Sprache und Weltbezug: Adorno, Heidegger, Wittgenstein* (Freiburg/München: Verlag Karl Alber, 1997), 27쪽 이하를 참조할 것. 여기에서 글라우너는 ‘고전적인’ 언어 구상(프레게, 러셀, 초기 비트겐슈타인)과 ‘초월론적인’ 언어 구상(후설, 칸트), 그리고 ‘화용론적인’ 언어 구상(데이빗슨, 콰인, 후기 비트겐슈타인)으로 나누어 언어철학의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체계적인 문제설정을 시도한 후, 언어분석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서 아도르노와 하이데거의 언어비판을 수용하여 언어 분석성의 문제, 말하자면 분석적인 언어 속에서 비개념적인 것에 대한 반성의 문제를 새롭게 공식화하려고 시도한다.

론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불균형과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 수동적인 객체의 자리에 능동적인 주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주체와 또 다른 주체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조에 입각한 더 나은 사회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이론이 주체들 간의 합의를 목적으로 할 때 부딪히는 맹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주체에 의해 억압된 것들과의 화해까지 목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 상호주관성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을 주장하거나 말할 능력과 조건을 결여한 다른 주체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지배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억압된 것들과 그것들의 고통에게 목소리를 부여할 언어를 찾고자 한 아도르노의 시도는 그 화해의 염원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에 매진한 언어이론으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최근 들어 점점 더 활발히 발굴되기 시작한 아도르노의 함축적 언어철학의 숨겨진 보물들 중 겨우 한 가지일 따름이다.

## 참고문헌

- 민형원, 「현대철학의 글쓰기의 형식으로서의 에세이」(2001), 한국미학회, 『미학』 제30집(2001), 137-168쪽.
- 게오르크 루카치(박정호 · 조만영 역), 『역사와 계급의식』(서울: 거름, 42005).
- 위르겐 하버마스(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서울: 나남, 2006).
- \_\_\_\_\_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서울: 문예출판사, 1995).
- 이영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관」, 한국분석철학회, 『철학적 분석』 10 (2004), 25-51쪽.
- Theodor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GS), Hrsg., Rolf Tiedeman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0ff).
- GS 1 Philosophische Frühschriften
- GS 3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DA)
- GS 4 Minima Moralia. Reflexionen aus dem beschädigten Leben (MM)
- GS 6 Negative Dialektik (ND)
- GS 7 Ästhetische Theorie (ÄT)
- \_\_\_\_\_, *Philosophische Terminologie: Zur Einleit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1997).
- Sabine Bayerl, *Von der Sprache der Musik zur Musik der Sprache: Konzepte zur Spracherweiterung bei Adorno, Kristeva und Barthes*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2002).
- Donald A. Burke et. al.(ed.), *Adorno and the Need in Thinking: New Critical Essay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 Christoph Demmerling, *Sprache und Verdinglichung: Wittgenstein, Adorno und das Projekt einer kritisch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4).
- Friedrich Glauner, *Sprache und Weltbezug: Adorno, Heidegger, Wittgenstein* (Freiburg/München: Verlag Karl Alber, 1997).
- Friedemann Grenz, *Adornos Philosophie in Grundbegriff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4).

- Peter Uwe Hohendahl, *Prismatic Thought*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5).
- Fredric Jameson, *Late Marxism, or, The Persistence of the Dialectic* (London: Verso, 1990).
- Simon Jarvis, *Adorno: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1998).
- Sherry Weber Nicholsen, *Exact Imagination, Late Work* (Cambridge: MIT Press, 1997).
- Richard M. Rorty, "Introduction: Metaphilosophical Difficulties of Linguistic Philosophy,"  
ed. Richard M. Rorty, *The Linguistic Turn: Essays in Philosophical Metho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1992).
- Hermann Schweppenhäuser, "Dialektischer Bildbegriff und 'dialektisches Bild' in der  
Kritischen Theorie," Hrsg., Gerhard Schweppenhäuser und Wolfgang Bock, *Zeitschrift  
für kritische Theorie*, Heft 16(2003), 7-46쪽.
- Albrecht Wellmer, *Endspiele: Die unveröhnliche Moderne. Essays und Vorträge* (Frankfurt am  
Main: Suhrkmap, 1993).

원고 접수일: 2009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09년 11월 16일

게재 확정일: 2009년 11월 30일

Sprache, Kritik und die Utopie der Versöhnung:  
Versuch einer Rekonstruktion der Adornos  
Sprachtheorie

Chung, Woo-jin

Die vorliegende Studie untersucht Adornos Gedanken über die Sprache, um einen interpretative Rahmen, in dem seine Hauptthemen von Sprache miteinander sich verknüpfen, aufzubauen. Dabei zeigt sich Adorno als ein Sprachphilosoph, der über die philosophischen Probleme der Sprache nachforscht. Zuerst behandeln wir den materialistischen, geschichtlichen, und dialektischen Charakter der Sprache, aufgrund einer Rekonstruktion Adornos Grundkonzeption über Sprache, insbesondere in seinem frühen Essay »Thesen über die Sprache des Philosophen«. Indem wir die Geschichte der Sprache im Hinblick auf die geschichtlich verschiedenen Verhältnisse zwischen Sache und Wort rekonstruieren, lässt sich zeigen, daß seine Sprachkritik in *Dialektik der Aufklärung* (1947) mit der Verdinglichungskritik in Verbindung steht. Anschließend versuchen wir, aufgrund des Konstellationsbegriff in *Negative Dialektik* (1966), seine Sprachtheorie darzustellen. Es handelt sich um einen Versuch, die Möglichkeit einer alternativen Sprache zu suchen. Hier ist die Frage, wie kann die Sprache das Nicht- Sprachliche, Nichtidentische, oder die Andersheit ausdrücken oder darstellen, ohne auf

das Identische reduzieren zu lassen? Darauf antwortet Adorno mit »Konstellation«, ein Verfahren, wie die philosophische Sprache sich als das Organ für die utopische Versöhnung behaupten kann.

